

본 문: 삼하 15:30-16:23

## 제 목 : 다윗의 피신과 압살롬의 입성

### 1. 고난 중에 기도한 다윗

다윗은 맨발로 울며 떠나는 피난길에서 아히도벨(다윗 왕의 책사)이 반역했다는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삼하 15:30-31).

### 2. 다윗을 도운 후새

다윗은 후새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 압살롬에게 충성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기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삼하 15:32-37).

### 3. 다윗과 시바

므비보셋의 종으로 사울 왕가의 재산을 관리하던 시바는 고난에 처한 다윗 왕을 돕는 척하여, 그를 속이고 사울 왕가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

다윗 왕은 피난길에서 시바의 대접을 받고 그의 거짓 보고를 받은 후 사울 왕가의 재산을 전부 그에게 주었다(삼하 16:1-4).

#### 4.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

##### 1) 시므이의 저주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사울의 친족 게라의 아들)가 자신의 가문의 몰락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다윗과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했다(삼하 16:5-8).

##### 2)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다윗의 자세

아버새 장군이 독설을 퍼붓는 시므이를 죽이려하자 다윗은 그를 만류했다. 시므이는 계속 따라가면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다(삼하 16:9-14).

#### 5. 압살롬의 입성

다윗의 명을 받은 후새는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한다. 압살롬은 후새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삼하 16:15-19).

#### 6. 아히도벨의 계략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근친상간을 행하게 하여 1)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게 하고 2) 아버지께 대하여 부모독한 행위를 하게 했다(삼하 16:21-23).